

문화특종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일원

마가렛 데이꽃 군락지 조성

고송도지 섬 부안군 위도면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의 일환으로 파장금항 일원에 마가렛 데이꽃 군락지를 조성해 색다른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도면의 첫 관문인 파장금항 일원에 마가렛 데이꽃과 금계국 등 3만 주를 대단위로 식재해 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인 흰색의 마가렛 데이꽃과 노란 색의 금계국은 매년 5월 중순 개화해 6월 말까지 피는 꽃으로 국화과에 속하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위도면은 현재 위도해수욕장 동산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 화인 위도상사화 군락지와 위도에 자생하고 있는 자연 소나무를 활용한 분재공원 등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신입 소통간담회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에서 지난 18일 저녁 김용철 지구대장과 새내기 순경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인 존중문화 확산 및 신입 경찰관 조기 적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주현 순경은 "지구대장과 격의없이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선배 경찰들의 많은 노하우를 빨리 습득해 프로경찰이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식중독 예방 캠페인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민)는 지난 19일 김제검산초등학교 일원에서 학생 및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요령, 고카페인식품 적게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부정·불량식품 바로알기, 나트륨 줄이기 건강올리GO 등에 대하여 홍보 리플릿 및 수첩 물병 손세정제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위생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불량식품과 좋은과자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과자를 사기 전 확인하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파이팅을 외쳐주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매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생활안전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어린이 스스로 안전한 기호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문화제 안전관리 심의회

정읍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7회 정읍시문화제와 제20회 전국민속사움대회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가졌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는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 5개 유관기관 및 시 안전관계자가 참석해 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심의회에서는 교통과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대책 등 축제장 제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심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불성실 의정활동 눈총

의원들 본회의·상임위원회에 불출석·조례발의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진 가운데 불성실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10월 19일자 10면> 특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거나 조례발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김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비주류의원이 위원장인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주류측 의원들이

개인사정 이유 들어 회의 불참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을 위해 행정감사 특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부의장실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던 중 A모 의원과 B모 의원은 현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낯 뜨거운 행동 등을 보여 계파간 갈등을 보여 자질문제까지 지적을

받고 있다. 후반기 제7대 김제시의회는 첫 출발부터 의원들 간 불신이 커지면서 의장을 중심으로 2의원 7의원, 0의원, 1의원, 0의원, 0의원 등 7명의 주류와 0 의원, 1의원, 0 의원 7의원의 의원들 7명의 비주류로 양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모씨(54 오촌동)등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문화시민운동 실천협의회와 직원들은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친절, 친절, 나라사랑, 이웃만들기)을 실천하기 위해 18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김제시 성덕면, 문화시민운동 실천 캠페인 전개

이웃만들기·친절·청결·나라사랑의 4개 분야로 나눠 실시

김제시 성덕면 문화시민운동 실천협의회(위원장 양경철)와 직원들은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친절, 친절, 나라사랑, 이웃만들기)을 실천하기 위해 18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품격높은 시민, 세계속의 명품도시 실현"의 목표로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문화시민운동은 공직자가 솔선하고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문화시민운

동 실천협의회 및 직원들은 성덕면 일대를 돌며 주민 및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문화시민운동 4개분야 중 이웃만들기 분야는 밝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 실천과제가 있으며 친절분야는 방문객을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 직원진절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친절시민 소양교육으로 사회단체 회의시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청결분야로

문화시민거리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쓰레기 줍기 및 화단정비를 실천하고 있고 나라사랑 분야로 국경일에 태극기 사랑나눔 추진의 일환으로 태극기 기증운동을 실천하고 태극기거리 조성을 위해 실천협의회가 남포일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양경철 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으로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덕면이 될 수 있도록 성덕 주민, 직원 모두가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와 국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강소성 서주(徐州)시 체육협회 방문단이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정읍을 찾았다.

중국 서주시 체육협회 정읍방문

체육교류 활성화 간담회

정읍시와 국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강소성 서주(徐州)시 체육협회 방문단이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정읍을 찾았다.

중국 서주시 외사관공실 손위민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체육협회 관계자 5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정읍을 방문했다.

첫 날은 정읍시체육회 주관 환영행사에 참석했고 둘째 날은 정읍시체육회 사무실을 방문, 양 시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필아정과 실내씨름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내장산국립공원, 그리고 구절초공원 등 주요 관광병소를 둘러

봤다.

김제시 시장은 "체육,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확대하여 양 도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4년부터 정례화 된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시는 그간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류단이 상호방문해 무술시범과 친선경기 등 교류를 가져왔다.

한편 정읍시는 서주시와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고등학교 학생 스포츠에 국제미술교류전, 체육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라'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최일구씨, 정읍시민 대상 특강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최일구씨가 오는 28일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당일 오후 2시 여성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이번 강좌는 제56회 시민행복 특별프로그램이다. 최 전(前) 앵커는 씨네 이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라'는 주제로 기자와 뉴스앵커 등을 통해 얻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유머와 위트, 재치 있는 말씀씨로 들려줄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

부, 정치부 등을 거쳤다.

또 스포츠 취재팀장과 보도제작국 부국장 전 MBC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수차례의 강연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최 전(前) 앵커는 앵커 시절 당시 과격적이고 시원시원한 멘트와 유머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1992년 MBC 공로상과 1995년 방송협회 대접한 21 특별상 및 2004년 경희방송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전 직원에 정부3.0 사이버 교육

PC영상회의 시스템인 '나라e음' 통해 온라인 회의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PC영상회의 시스템인 '나라e음'을 통해 정부3.0에 대한 전 직원 사이버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나라e음'은 중앙 및 지방정부·부서 간 공유, 소통, 협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인터넷 사이트로서 대면보고나 회의참석을 위한 자리 등 없이도 개인 PC에서 온라인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교육은 정부3.0 추진사업 중 하나인 '나라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정부3.0의 추진배경, 개념과 의미, 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과 추진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울러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이번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김제시 전 직원이 3.0의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전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정부3.0,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나라e음 PC 영상회의시스템이 회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 IT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부3.0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하반기 운영회의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위기(가능) 청소년들을 검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하반기 운영위원회회의를 시작으로 실행위원, 학교, 교사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를 가졌다.

CYS-Net은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화합중단, 기술, 인터넷 중독 등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는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법사부 부안지구, 부안청년회의소, 부안 성모병원 등 11개 필수연계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 등이 참석해 2016년도 CYS-Net 통합지원사업·학교폭력예방사업·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2016년도 사업 평가와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2017년도 CYS-Net 신규 통합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가능)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려고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사랑의열매봉사단은 지난 19일 읍면동 복지담당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의식을 확산을 위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사랑의열매봉사단 행복꾸러미 전달

김제시에 사회나눔위해

김제시 사랑의열매봉사단은 지난 19일 읍면동 복지담당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의식 확산을 위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사랑의열매봉사단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복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 430세대에 라면, 화장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김종욱봉사단장은 "물품을 받고서 고마워하는 이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나눔수록 배로 커지는 행복을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져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저소득층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